

## 7) 문화의 복음화와 성가대

흔히 어느 본당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인구 대비 복음화율과 더불어 미사 참례 비율로 가늠되며 교우들의 신앙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우선적인 척도는 주일미사 참례 및 교무금과 판공성사 여부등으로 따진다. 이 기준은 다분히 행정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문화의 복음화나 신앙의 생활화라는 관점의 기준으로는 대단히 불충분한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새 너나할 것 없이 이런 행정편의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본당의 주임사제는 “팬데믹을 통해서 진짜 교우와 그렇지 못한 교우가 구분되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성당을 자주 오가며 미사에 자주 참례하는 교우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간혀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주위에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통해 오히려 선교 혹은 복음화라는 그물을 더 넓게 펼쳐주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는 소위 ‘밀가루 신자’들을 양산하기도 했던 사회복지적 접근과 1970~80년대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민주화운동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새 시대에는 문화의 복음화라는 새로운 선교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찌기 교회의 여러 문헌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바 있으며 특히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도 이미 “복음과 문화의 괴리는 틀림없이 우리 시대의 비극”(「현대의 복음선교」 20항)이라고 밝히신 바 있다. 이 때문에 가톨릭 평화방송도 설립되었고 작금의 문화현상 속에서 가톨릭정신을 전파하자는 취지로 여러 잡지들이 발행되어 왔으며 문화의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예술 및 문화계 단체들이 설립되어 왔으며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상업영화로 제작하는데 일조하여 선교와 순교라는 교회의 정신을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 개척과 개혁의 정신으로 침투시키려는 가톨릭문화원의 노력과 같은 일들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아직 개별 단체들의 제한적 노력에 머물러 있으며 재정적 한계등의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7년 미래학의 대부로 불리는 미래학자 짐 데이토(Jim Dator)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류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 다음엔 ‘꿈의 사회’라는 해일이 밀려온다”고 단언한 바 있는데, 이는 5년이 지난 현재 소위 ‘한류’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에서 신산업으로까지 인정을 받는 ‘이미지화(Imagination)’라는 문화현상에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별 단체와 몇몇 행사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대 담론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 싹틔줄과도 같은 일선 본당과 더불어 무엇을 해 왔으며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음악과 문화라는 담론 안에서 일선 본당의 성가대는 여전히 ‘성전중심주의’와 ‘전례중심주의’라는 고루한 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문화의 복음화’에 있어서 근본적 요소는 신앙적 실천을 통해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침투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찌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28항에서 “서로 사랑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성찬례 거행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전례학자인 윤종식 신부는 이를 두고 한 기고문에서 “전

례 정신의 기본인 ‘믿는 규범(Lex credendi)을 기도하고(Lex orandi), 기도한 바를 생활해야 한다(Lex vivendi)’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교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전례와 그 실천은 동일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전례, 특히 미사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전례헌장 10항)인 것이고 이 명제에 따르면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적 결단과 삶 및 그 실천이 집약되고 봉헌되는 장(場)이 바로 미사이며 또한 그 삶과 실천의 근본적 동력도 바로 미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문화의 복음화를 위한 동력도 바로 여기에서 얻어진다.

이는 전례 형식화 및 하느님 체험이라는 개념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팬데믹이라는 기회를 통해 성음악 봉사자들은 형식화된 전례를 벗어나 하느님 체험으로 가득한 전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쇄신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또한 삶 속의 실천도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전례중에 이루어진 자신의 봉헌과 봉사는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성가대는 그룹으로서 혹은 개인적으로도 음악이라는 수단과 매개체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의 복음화에 자신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본당 성가대별로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본당의 지역사회에 자리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위한 자선 음악회나 노래 봉사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미디어를 통해 트로트나 EDM 혹은 랩과 같은 세속음악의 범람속에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삶 속의 신앙을 노래하는 휴식과도 같은 현대성가 노래 교실등에서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찌기 교황청 성직자성에서는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에서 “본당 사목구는 지난날과 같이 모임과 사교의 으뜸가는 곳이 아니기에 동행과 친교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14항)고 지적하였으며 이런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여러 구체적인 봉사를 시도함으로써 성음악 봉사자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신앙의 기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문화의 풍요롭고 창의적인 만남은 참된 발전으로 이어지고, 한편으로 하느님 말씀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강생하시어 이 역사를 쇄신”(4항)하시는데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